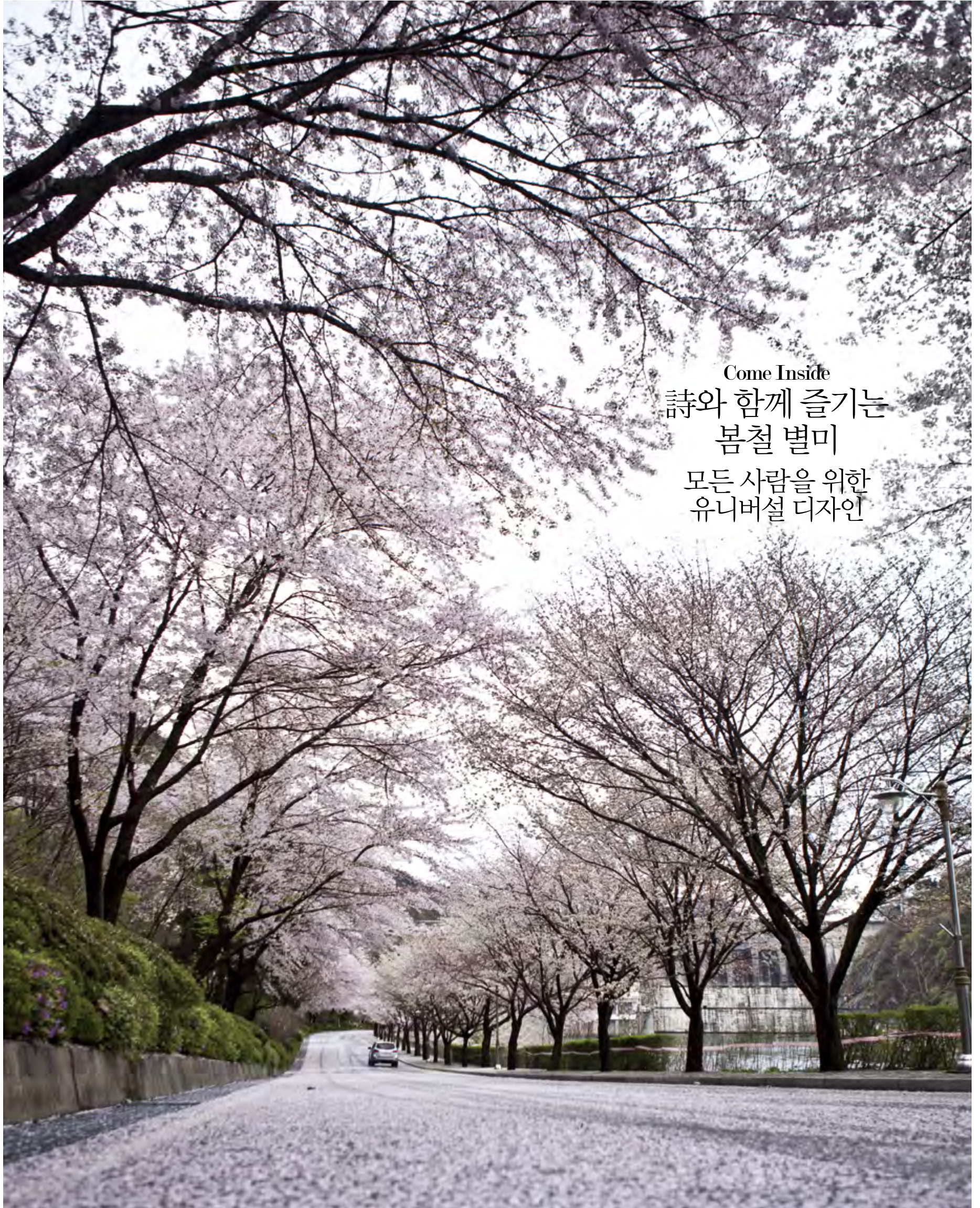


SENIOR조선

APRIL
2013
VOL.12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 senior.chosun.com



Come Inside
詩와 함께 즐기는
봄철 별미
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시니어조선〉· 캐나다관광청과 함께하는 리마인드 허니문

그때 그 약속, 지금 지켜주세요!

“나중에 더 근사한 곳으로 신혼여행 다시 가자.”

신혼 첫날밤 신부에게 이런 약속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내와의 첫 약속을 까맣게 잊고 지내신 건 아닌가요.
이즈음 다시 떠나는 허니문을 통해 당시의 설렘을 추억하고,
두 사람이 함께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이 이 시대의 멋진 중년 부부에게 리마인드 허니문을 선물합니다.
세계에서 손꼽는 미항 도시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더없이 경이로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자리한 온타리오주에서 즐기는 리마인드 허니문!
사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두 커플에게
각각 캐나다 리마인드 허니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대상	만 44세 이상의 건강한 심신을 지닌 한국 국적의 부부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신청 방법	〈시니어조선〉 홈페이지(http://senior.chosun.com/event)에서 지원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접수 honeymoontocanada@gmail.com 으로 송부 우편 접수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조선일보사 구관 3층 시니어조선 (우 100-756) (우편물 하단에 '리마인드 허니문 응모' 표기 요망)
일정	1차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신청기간 2013년 4월 1일 ~ 5월 5일 당첨자 발표 2013년 5월 15일 〈시니어조선〉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허니문 일정 2013년 6월 3일 ~ 6월 9일
	2차 온타리오주 신청기간 2013년 6월 1일 ~ 7월 5일 당첨자 발표 2013년 7월 15일 〈시니어조선〉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허니문 일정 2013년 8월 3일 ~ 8월 9일
지원내역	캐나다관광청에서 왕복항공권, 호텔, 식사 및 액티비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여행기는 〈시니어조선〉에 게재됩니다.
기타사항	응모 사연은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작의 지적재산권은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에 귀속됩니다.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자정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문의	캐나다관광청 02-733-7790 협찬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관광청 (www.hellobc.co.kr), 온타리오주 관광청 (www.ontariotravel.net/kr)



* 여행지에 관한 소개는 본지 14~15페이지를 참고하세요.

inside

VOL.12 APRIL 2013 <시니어조선>은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입니다.



06 GALLERY 멋진 남자, 신비의 삶을 쫓다

기개와 지조, 풍류와 해학을 지닌 조선의 선비가 그리워지는 요즘, 이동춘 작가의 사진으로 선비정신을 간직한 옛 타전을 만나본다.

08 TRAVEL 詩와 함께 즐기는 봄철 별미

따사로운 봄 내음을 쫓아 훌쩍 떠나보자. 전국 곳곳의 별미와 그보다 더 맛깔난 한 편의 시가 있는 풍경 속으로!

10 PEOPLE 한길사 김언호 대표

사람들의 생활 속에 한 권의 아름다운 책을 놓고 싶다는 출판인 김언호. 지난해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책박물관을 개관한 그가 빠져든 책의 유토피아.

12 LOOK 패션의 종결자, 클래식 슈즈

그 옛날 광화문 거리를 누비던 '모던보이' 못지않은 멋쟁이로 당신을 변신시켜줄 클래식 슈즈를 소개한다.

14 JOY OF LIFE 그대 그 약속, 지금 지켜주세요!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이 함께하는 리마인드 하니문 프로젝트.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멋진 중년 부부에게 리마인드 하니문을 선물한다. 그곳으로 미리 떠나보자.

16 INDUSTRY 유니버설 디자인과 구부러진 숟가락

시니어 용품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이 예견된다. 고령자는 물론이고,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에 대해 알아보자.

18 THIS MAN 신용락 변호사

이 남자의 '딴짓'은 마흔이 넘어 시작됐다. 지난 2000년 그는 변호사 활동을 중단하고 돌연 미국으로 떠났다. 대체 왜?

19 HEALTH 대상포진이 중년을 위협한다

대상포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포진과 통증의 강도는 심각한데 치료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20 MONEY 뜬대! 나무 재테크

금융이나 부동산 같은 고루한 투자에서 벗어나 나무와 친해지자. '나무 재테크'로 자연 속 여유와 부를 한꺼번에 누리기.

21 WEALTH 부자를 위한 세테크 전략

부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세금, 부자 혹은 부자가 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세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22 SENIOR CARE 부모님을 혼자 두지 마세요

사고는 예고 없이 온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특히 그렇다.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고예방법.

23 BULLETIN 이달의 소식

일산에 전통미를 살린 특1급 호텔이 문을 열었고, 재미 조각가 존 베가 신작을 선보인다. 이달에 체크해야 할 알찬 정보들.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CO-PUBLISHER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상무 김형래 hr.kim@yourstage.com
이사 전영선 ys.chun@yourstage.com

EDITORIAL & ART

편집장 정지현 toctoc@chosun.com
선임기자 박소란 psr@chosun.com
객원기자 노준형 jh.roh@yourstage.com
남미영 willera@chosun.com
사진 C.영상미디어
디자인 별디자인
미술교정 김경애 aesiwon@naver.com
교열 최귀열 gwiyeol61@hanmail.net

MARKETING & ADVERTISING

팀장 양훈식 huns@chosun.com
과장 이진섭 realfire@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에디터 문형경 ell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49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주)타라티피에스
인쇄
출력 아이엔지프로세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원효로, 한강로, 명동, 남대문로, 무교동, 공덕동, 서교동, 디지털단지, 경기 분당, 과천, 일산, 영통, 기흥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밀집지역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배포됩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니어조선>은
국내 대표 매거진 포털 APP
'탑진'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The Art of Handcraft



THE BALVENIE®
SINGLE MALT SCOTCH WHISKY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 02-2152-1600 경고:지나친 음주는 건강하나 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GALLERY

병산서원 들문

병산서원 서재 경의재(敬義齋)에서 들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배롱나무가 한눈에 들어온다. 들문이 액자가 되어 시야에 들어서는 배롱나무가 또 다른 풍광을 그려내며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듯하다.



멋진 남자, 선비 그들의 삶을 쫓다

조선시대 선비는 청렴과 청빈을 우선 가치로 삼아 일상생활에서 검약과 절제의 미덕을 실천했다. 할 말은 하는 서툰 발 같은 기개, 일관된 지조 그리고 삶을 즐기는 풍류와 해학을 지닌 선비는 시류에 영합하는 것을 비루하게 여겼다. 정신보다는 외양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조선의 선비는 문득 그리워지는 대상이다.



봄의 찻상

작약꽃 한 송이를 상 위에 올려 봄날의 정취를 담아낸 찻상. 조선의 선비들에게 차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보양해 주는 음식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우정의 표시로 차를 선물했고, 시를 지을 때나 술을 마신 뒤에도 마음을 다스리고자 차를 마셨다.

도산서원 대문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이 노년에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해 후학을 양성하며 기거하던 곳이다. 유생들이 거처하며 공부하던 농운정사, 서원의 출판사로 각종 목판본과 책을 보관했던 창판각과 광명실, 퇴계 선생의 위패를 모신 상덕사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조선 선비의 정신을 갈고 닦고자 했던 유생들과 여러 가지 소임을 가지고 이곳을 지켜가던 이들 모두가 매일같이 드나들었을 대문.



목계서원에 핀 홍매화

1687년(숙종 13년)에 창건된 목계서원은 조선 초기 성종 때 대사성(大司成)을 역임한 김계행과 세종때 사헌부 장령(掌令)을 지낸 옥고를 봉향하는 곳이다. 1869년(고종 6년)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후에 강당과 문루인 음청루와 진덕문, 동재(東齋) 건물 등을 복원했다. 서원 옆에는 보백당 김계행의 종가가 있다.

후조당

조선 선조 때의 문신 김부필(1516~1577)이 지었다고 전하는 광산 김씨 예안파 종택에 딸린 별칭 건물. '후조당'이라는 현판은 스승인 퇴계 이황의 글씨다. 원래는 안동시 예안면에 있었으나 안동댐 건설로 인해 1974년 동쪽으로 2km 떨어진 안동시 와룡면으로 이전했다.



사진가 **이동춘**은 1987년부터 10년간 출판사 디자인하우스 사진가자로 여행, 리빙, 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진을 찍으며 자신만의 사진 세계를 구축했다. 이후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중가 사진을 촬영하며 선현들의 의(義)와 정신을 오늘의 시선으로 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중가, 선비정신과 예를 간직한 집'이라는 주제의 사진전을 열었고, 지난 2월에는 헝가리 한국문화원에서 그리고 4월에는 불가리아에서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에어캐나다 인천~토론토 직항 취항 2013년 6월 3일부터 연중 주 3회 운항

■ 인천~토론토 운항 스케줄

구간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항요일
인천~토론토	18:30	18:10	월,목,토
토론토~인천	14:05	16:35 +1	수,금,일

※ 2013년 6월 3일 부터 연중 운항 (Boeing 777-300)
※ 토론토 경유 캐나다 및 미국, 중남미 주요도시까지 편리한 연결 가능

에어캐나다 한국지점
서울) 02-3788-0100
부산) 051-463-7671

www.aircanada.co.kr

AIR CANADA

A STAR ALLIANCE MEMBER

TORONTO



The Best International
Airline in North America
three years in a row
now has four stars

TRAVEL

詩와 함께 즐기는 봄철 별미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픈 계절. 따사로운 봄 내음이 입안까지 깊숙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좋으리.
꽃과 나무와 바람과 그 속에서 난 먹거리와 먹거리보다 더 맛깔난 한 편의 시가 있는 풍경.

앞대 개포가에선 또 나직한 뱃고동이 운다
집집마다 부뚜막에선 웅병이 불고 야야, 주꾸미
배가 들었구나, 할머니 찹찹 입맛을 다신다
빙초산 맛이 입에 들척지근하고 새콤한 것이
달기가 햇빠꾸기 소리 같다

아버지 주꾸미 한 몫을 사오셨다 어머니 고추장
된장을 버무려 또 부뚜막의 웅병"을 가을이신다
주꾸미 대가리를 씹을 때마다 툭툭 알이 터지면서
아삭아삭 씹히는 맛, 아버지 하신 말씀
니 할매는 이맛을 두고 어찌갔을 거나

* 웅병: 식초병

— 송수권 '봄날' 中

충남 서천 | 주꾸미

주꾸미는 산란을 앞두고 알이 단단히 영그는 지금이 계절이다. 주꾸미 일번지로 통하는 서천 홍원항으로 가자.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주꾸미를 재료로 볶음, 회, 무침, 샤브샤브 등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고추장과 간장 등으로 매콤하게 맛을 낸 주꾸미볶음은 봄철 입맛을 돋우기에 안성맞춤. 서천 주꾸미는 유독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기로 유명한데, 비결은 다름 아닌 '소라방'. 서천에서는 소라 껍데기를 줄에 묶어, 마치 낚시하듯 주꾸미를 산 채로 잡아 올리는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주꾸미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스테미나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자양강장제 성분인 타우린이 무려 오징어의 5배 이상 함유돼 있다고 하니 원기 회복에도 으뜸.



Tip 동백꽃 · 주꾸미축제

홍원항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 이동하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량포구 동백나무숲이 나온다. 이즈음 동백숲의 춘백은 하나둘 선홍빛 망울을 터뜨려 입뿐 아니라 눈까지 호사를 누리게 한다. 주꾸미도 맛보고 꽃구경도 할 수 있는 동백꽃 · 주꾸미축제를 놓치지 말자. 올해 14회를 맞는 동백꽃 · 주꾸미축제는 주꾸미 낚시, 주꾸미 요리장터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충남 태안 | 꽃게

봄은 바야흐로 꽃게의 계절이기도 하다. 산란을 앞두고 알이 통통히 오른 게맛을 보지 않고 어찌 봄을 냐다 할 수 있을까. 태안 안홍항(신진도항)으로 가면 무침, 탕, 찜 등 다양한 꽃게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안홍항은 서해안의 대표적 인 수산물 집산지다. 하지만 알아둘 것! 작은 항구인 채석포항에서 잡아 올린 꽃게가 현지인들에겐 더 인기라는 사실. 맛에서 한 수 위라는 후문이다. 속이 딱 찬 봄꽃게로 만든 요리라면 어떤 것이라도 구미를 당길 테지만, 그래도 태안의 명물은 뭐니 뭐니 해도 간장게장이다. 밥도둑 중의 밥도둑, 항구를 한 바퀴 돈 다음이라면 게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찾아나서는 게 현명하다. 안홍항 부근의 '화해당'이 유명하다. 군청 소재지인 태안 읍내로 가도 이름난 게장 전문 식당 몇 곳을 만날 수 있다.

Tip 태안튤립꽃축제

사계절 꽃축제도 좋은 구경거리다. 태안에서는 봄 들릴, 여름 백합, 가을 달리아 등 매 계절 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린다. 태안 꽃축제를 찾는 관람객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봄에는 자그마치 3만 명이 이곳을 찾았다. 올봄 튤립꽃축제는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태안군 남면 신운리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의 부제는 '수줍은 사랑의 고백'. 튤립과 유채, 메리골드, 페튜니아 등 각종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풍경 속에서 건반에 로맨틱한 남편이 되어 보는 건 어떨는지?

사진: 박소란, 서천군청, 서천군청, 한국관광공사



미나리파릇하게 데쳐
계란지단으로 떠를 두르고
나란히 접시에 오른 다음
초고추장으로 연지 찍어먹던

미나리강회

그날, 그대가
내 굵고트 앞으로
밀어주었지요

(...)

오, 오늘 저녁
문득 생각나네요
미나리강회
푸릇한 그대의 이마.

— 정두리 '미나리강회' 中



경북 청도 | 미나리

쌈싸름한 향과 아삭아삭 씹히는 질감이 살아 있는 봄미나리.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한 웰빙식품이다. 해독 및 혈액 정화에 특효. 특별한 양념 없이 날것으로 혹은 데쳐서 먹으면 봄미나리의 맛을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다. 미나리, 하면 떠오르는 곳은 청도 한재. 청도읍 초현리, 음지리, 평양지 일대를 한재라고 한다. 이 일대는 마을 전체가 미나리밭이나 다름없다. 밭에서 금방 채취한 싱싱한 미나리를 그 자리에서 쌈 삼아 고기와 곁들여 먹는 맛이 쏠쏠하다. 화악산 정맥에서 나는 암반지하수로 재배해 특유의 향이 강하고 당도가 높은 한재 미나리. 미나리를 이용한 요리 중에서는 미나리강회가 대표적이다. 옛 궁중음식의 일종인 미나리강회는 끓는 물에 데친 미나리 줄기로 한테 포갠 편육, 달걀지단, 고추, 버섯 등의 재료를 감아 썬 것. 봄 막걸리 안주로 제격이다.

Tip 청도소싸움축제

매년 이맘때 청도군 화양읍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는 축제가 한창이다. 소싸움은 청도의 대표적인 민속행사이자 정부가 인정한 문화관광축제. 90여 마리 싸움소의 현란한 경기를 관전하는 것도 이 봄의 색다른 묘미가 될 터. 옛 향수를 불러일으킬 소싸움축제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바다를 떠다 된장을 풀고
바늘에 봄을 달아 낚은 도다리를 넣는다
썩을 뜯어다 해귀 넣고

봄도다리썩국 한 그릇이면 되겠다
뿔이 숨어서 기며 세상을 한쪽으론만 흘겨보다가
눈이 한켠에 물린 것들
덤불썩마냥 마음이 빼세어
이사람 저사람 치대는 것들이라면
봄도다리썩국 한술갈만 떠먹어봐도 알겠다

남녘 바다에서 깨어난 봄이
저 어족과 어떻게 눈을 맞춰 봄바다에 춤추게 하는지를
해썩 한 잎이라도 다칠새라 국을 끓여내
거칠고 매마른 몸을 대접하는 그의 레시피를

— 윤성학 '봄도다리썩국' 中



경남 사천 | 도다리

봄의 진미를 논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어족이 바로 도다리. 경남 해안지방, 그중에서도 사천의 도다리 맛은 단연 최고로 꼽힌다. 삼천포 앞바다의 거센 물살로 인해 육질이 단단한 것이 특징. 이맘때 삼천포항 일대 어시장에는 온통 도다리 일색인데, 좌판에서 싱싱한 횡감을 구입해 인근 식당에서 요리값을 치르고 먹는 편이 가장 편리하다. 회로 갓 떠낸 도다리의 쫄깃한 살점을 새콤한 초장에 찍어 먹는 맛이 란... 구수한 된장에 물이 오른 도다리를 썩고 함께 끓여낸 도다리썩국 역시 봄이 가기 전에 반드시 맛봐야 할 필수 요리다. 알싸한 햇썩 내음이 배어든 생선의 보드라운 살점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야말로 맛의 또 다른 경지가 바로 여기에 있나니.

Tip 와룡문화제

사천에서는 매년 봄 와룡문화제가 열린다. 문화제가 열리는 선진리성까지는 삼천포항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거북선을 띄워 왜적을 무찌른 곳으로 잘 알려진 선진리성은 사천만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벚꽃단지이기도 한 이곳은 축제 기간 내내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축제는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천포항과 남해군 창선면을 연결하는 창선 · 삼천포대교를 빼놓지 말 것. 한려수도의 빼어난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몸집이 통통하고 후딱하게 생긴 아줌마가
숨쉴 있게 끓여내는 멸치 된장찌개와 쌈
그것이 단연 으뜸가는 처방이라고
때로는 외지 친구들에게 자랑스레 소개도 하지만,
입맛을 돋우며 보글보글 끓을 때
된장냄새 풍기며 우리들의 인정도 함께 끓나니,
보라, 뜨거운 뚝배기 속에 와글거리며
죽은 멸치가 다시 살아나 펄떡거리는
저 싱싱한 멸치때를, 멸치때의 환호를,
푸른 상추나 다시마로 싸서 먹을 때마다
푸들거리는 삼해의 맥박은 출렁거리며
몸구식구식 쌓인 피로를 깨끗이 지워버린다.

— 이상개 '멸치쌈밥집' 中



부산 기장 | 멸치

19세기(자산어보)에서는 물에서 나오자마자 금세 죽어버리는 성질 급한 멸치를 '멸할 멸(滅)자'를 써 '멸어(滅魚)'라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니 봄에 한껏 물이 오른 멸치를 싱싱한 회로 즐기려면 직접 산지로 향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즈음 부산 대변항은 육질이 연한 '기장멸치'를 찾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이들로 활기를 띤다. 대변항은 기장에 위치한 작은 어촌이지만 동해안 일대에서 가장 큰 멸치어장을 거느린 곳. 이 일대 바다의 풍부한 플랑크톤 덕분에 멸치나 미역의 풍미가 남다르다. 뼈와 내장을 발라낸 기장멸치에 미나리, 썩갠, 갯잎 등의 갖은 재료를 넣어 발갛게 버무려낸 멸치회는 매콤새콤한 맛이 일품. 멸치회만큼 유명한 것은 갯장. 멸치 액정으로 김치를 담그면 그 또한 남해의 정취가 깃든 별미가 된다.

Tip 기장멸치축제

멸치 성어기인 봄이면 대변항 일원에서 기장멸치축제가 열린다. 먹거리 무료 체험을 비롯해 풍어제, 마당극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봄벌이 한창 무르익은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직 미정. 대변항 인근 오랑대도 기장의 자랑거리 중 하나. 드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기암절벽과 그 주변의 흐드러진 유채꽃에서 따뜻한 남쪽 지방의 향취를 만끽할 수 있다. 사진을 찍는 이들에게 이곳은 일출을 촬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기도 하다.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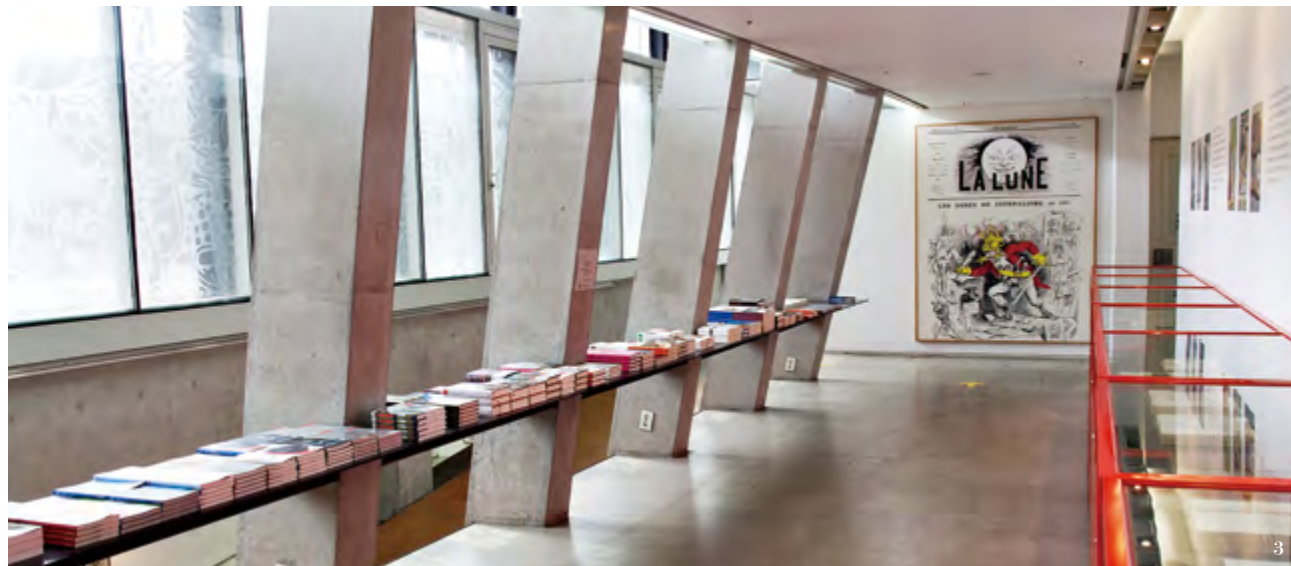
우리 생활의 한 가운데 한 권의 아름다운 책을 놓고 싶다

한길사 김언호 대표

책을 읽고 저자와 토론하며 정신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출판인의 역할이라는 김언호 대표.

한길사를 창립한 이래 37년째 책에 파묻혀 사는 그는 책 속 유토피아 예찬론자다.

책을 만드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를 만났다.



5

“젊은이들이 디지털에 함몰되어 책을 놓아버렸다.” 한길사 김언호 대표의 첫마디였다. 그러나 이후 그의 이야기는 출판문화의 위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출판문화 창출을 위한 계획과 시도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김 대표다웠다. 그는 우리나라 인문사상서의 대표적 출판사 한길사를 37년간 이름 그대로 ‘한결같이’ 이끌어 오고,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헤이리 예술마을을 만드는 데 주도

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가. 가치있고 필요한 일이다 싶으면 열정을 갖고 추진하는 그에게 비판론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듯 보인다. “책은 여러 기능을 한다. 삶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간존재의 근원을 탐구하게 한다. 재미있는 오락을 제공한다. 개인적·사회적 삶에 요구되는 사상과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책으로부터 얻는다. 한 시대 한 사회를 진보시키는 살아있는 이론과 사상을 창출해내는 것은 책을 통해 가능하다.”

어릴 때부터 김 대표에게 책은 조건 없는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 시골 고향집에는 책이 흔치 않았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진학하면서 그간의 갈증을 풀 수 있는 곳을 발견했다. 다름 아닌 보수동 책방거리. 책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향

홀했기에 시간만 생기면 그의 발길은 늘 그곳을 향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상경한 뒤에는 청계천, 인사동 책방거리를 기웃거리며 헌책을 구입했다. 신문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돈이 생기면 책을 샀다. 1975년 ‘동아투위’ 사건으로 타의에 의해 언론을 떠나게 됐지만 전화위복이 되었다. 출판사를 내면서 책과의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책박물관은 영혼에 영양을 주는 공간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무덤덤해질 법도 한데, 책을 향한 김 대표의 마음은 식을 줄을 모른다. 헤이리 북하우스에 개관한 한길책 박물관은 사랑의 증표와 같다.

“한국 지성사의 중요한 인물인 함석헌 선생을 비롯해 출간하는 책의 80%가 동서고금의 위대한 사상가를 다루는 인문학 서적이다. 우리가 만든 오래된 책들, 어려운 시절 곁을 받았던 책들, 곁에서 걸려 결국 출판하지 못했던 책들, 저자들의 흔적이 느껴지는 육필 원고...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 보여준다면 젊은이들을 위한 정신 교육의 장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박물관은 화석화된 곳이 아니다. 아름답고 오래된 책, 그 오래된 책의 향기를 느끼며 영혼에 영양을 주는 공간이다.”

책박물관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출판 역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소장한 희귀하고 가치 있는 책을 공유하기 위한 곳이기도 하

다. 여행이나 업무 차 해외에 나가면 그는 책과 관련된 지역이나 전시장, 고서점을 꼭 찾는다. 그러다 만난 윌리엄 모리스! 19세기 후반에 살았던 윌리엄 모리스는 시인이자 화가이며 건축가이자 공예운동가이며 자본주의 물질만능을 비판한 사회주의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책의 장인’이다. 김 대표는 모리스의 책을 처음 본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한다. ‘어떻게 책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싶은 게 책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다고.

“좋은 콘텐츠를 아름다운 그릇에 담으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책의 기능이 시공간을 넘어 지식과 정신을 창출·전송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형식의 아름다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윌리엄 모리스의 책은 아름다운 문자로 편집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이다.”

김 대표는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책 중 하나로 평가되는 〈초서 저작집〉을 비롯해 윌리엄 모리스의 책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이 외에 각기 다른 삽화와 화려한 장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간된 〈천일야화〉, 화가 귀스타브 도레의 삽화책 원본, 18~19세기에 발행된 신문·잡지 등 자신이 수집한 많은 자료를 여러 독자와 공유하고자 한다. 이들은 현재 한길책박물관 전시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한길책박물관은 단순히 소장품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의 역사를 통해 옛 장인들의 지혜와 책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출판도시는 지식과 문화에 관한 담론을 나누는 공간

“출판인들과 더불어 출판문화운동을 전개하며 새로운 책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때로, 왜 이렇게 나서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책도 하고 반성도 해본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를 새로운 차원으로 일으켜 세우는 데 출판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출판문화를 통해 시대와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생각을 펼쳐낼 수가 없다.”

최근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만큼 그의 출판문화운동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출판 관련 업체 160여 곳이 모인 파주출판도시가 지금까지 책을 만들어내는 이들과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이곳을 독자와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자 한다. 그 첫 단계로 출판도시에 입주한 출판사의 사옥 1층에 책방을 만드는 ‘책방거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북소리 조직위원장을 맡아 2011년부터 독자, 저자, 출판인이 함께하는 지식축제 ‘파주북(book)소리’를 개최하고 있다.

“출판도시를 그저 출판사들이 모여 있는 ‘출판단지’가 아닌 지식과 문화 예술에 관한 담론을 나누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캠퍼스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책을 매개로 다양한 강좌가 열리고 사람들이 만나 대화·토론하고 공연을 즐기면서 지식과 문화를 창출하는, 일종의 ‘열린 대학(Open University)’과 같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김언호 대표는 1968년부터 1975년까지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으며, 1976년 한길사를 창립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파주출판도시건설에 참여했고, 1990년 중반부터는 예술인마을 헤이리를 구상하고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98년 한국출판인회를 창설하고, 2005년에는 한국·중국·일본·대만·홍콩 등 동아시아 인문학 출판인들과 동아시아출판인회를 조직했으며, 2011년부터 파주출판도시에서 진행되는 책축제 ‘파주북소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직책이 더해져 책과 더불어 가는 그의 행보가 더욱 바빠졌다.

“한 권의 책은 하나의 박물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인들의 정신과 사상, 아름다운 한 권의 책을 함께 담론하는 공간으로서 한길책박물관을 열었고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출판도시 내 지리한 한길사 사옥 김언호 대표 사무실에서. 2 헤이리 북하우스는 2, 3층으로 편안하게 걸어 올라가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꾸몄다. 3 4 윌리엄 모리스의 〈초서 저작집〉, 세계 각국에서 출간된 〈천일야화〉 등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고서를 전시 중인 헤이리 한길책박물관. 5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책 중 하나로 평가되는 〈초서 저작집〉. 윌리엄 모리스의 목판 석표지, 테두리 장식화, 머리글자까지 돋보인다.

LOOK

패션의 종결자 클래식 슈즈

클래식 슈즈가 돌아왔다. 기본에 충실하되 다양한 스타일로 변주된 디자인은 패션을 완성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듯. 밝은 브라운 색상의 레이스업 슈즈에서부터 몽크 스트랩에 이르기까지... 그 옛날 광화문 거리를 누비던 '모던보이' 못지않은 멋쟁이로 변신시켜줄 아이템이다. 최고의 가족을 무두질하는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봄 신사의 품격과 스타일을 돋보이게 할 클래식 슈즈를 소개한다.

편리함과 스타일을 한꺼번에 잡은
몽크 스트랩 슈즈 구두 코 부분을
자연스럽게 태닝해 멋스러움을 더했다.
같은 비즈니스 슈트 차림을 해도 좀 더
날카롭고 세련된 느낌을 주어 레이스 업
구두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에드워드 그린 by 유니페어

검푸른 색으로 염색된 가죽이 세련됨을
더해주는 레이스업 윙팁 슈즈 푸른빛이
강줄아 블랙 컬러 슈즈보다 매치하기가
쉽다. 블랙과 네이비 컬러 슈즈를 매치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 슈트 차림에 잘
어울린다. 에드워드그린 by 유니페어

핑크빛이 감도는 밝은 브라운 컬러의
투톤 슈즈 밝은 가죽 톤과 스티치가
활동성을 강조해 캐주얼 차림에 어울린다.
데님과 면바지에 신으면 활기차고
건강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보에모스 by 143 E. NAPOLI

매끈한 디자인의 라이트 브라운 컬러
슈즈 가죽 패턴을 나누지 않고 이어지게
해서 발을 좀 더 길고 커 보이게 한다. 발
사이즈가 작아 보완할 수 있는 슈즈를 찾는
이에게 추천한다. 크로켓 & 존스

화려한 팁의 토 편칭 패턴이 눈에 띄는
브라운 슈즈 레이스 부분에 같은 컬러의
소재를 덧대어 클래식한 느낌을 살렸다.
발등을 많이 덮지 않는 바지와 매치하는
것이 좋다. 오베르시 by 143E. NAPOLI

투 톤의 갈색 조합이 멋스러운 구두
기존 비즈니스 슈트는 물론, 화려한 색상의
머플러나 셔츠와 함께 매치해도 좋다.
복숭아뼈까지 오는 짧은 길이의 바지를
선택하거나 바지 끝을 롤업해 투톤 슈즈의
매력을 살려 연출할 것을 권한다.
오베르시 by 143E. NAPOLI

보테가 베네타 특유의 위빙된 가죽 표현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두 레이스업 슈즈보다
편안한 느낌의 옷차림을 연출하고 싶을 때
신을 것. 발 볼이 넓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보테가 베네타

저음 함포 보테가 베네타(02-3438-7881), 아테스토나(02-554-4310), 유니페어(02-542-0377),
크로켓&존스(02-543-7885), 143E. NAPOLI(02-794-4837) 소품 원도 99가두공방(070-4030-7046)

JOY of LIFE

그때 그 약속, 지금 지켜주세요!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은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시대의 멋진 중년 부부에게 리마인드 하니문을 선물한다. 세계에서 손꼽는 미항도시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더없이 경이로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자리한 온타리오주로 떠나는 제2의 신희 여행지. 그곳으로 미리 가본다.



20km, 자동차로 30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이곳의 역사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토드만에 도착한 로버트 부차트와 제니 부차트 부부는 자신들의 집에 '벤베누토(Benvenuto, 이탈리아어로 환영한다는 뜻)'라는 이름을 붙이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변에 있는 석회암 채석장을 개간해 이탈리아 꽃인 스위트피와 장미를 심으며 주변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어갔다. 이렇게 시작된 부차트 부부의 정원은 지금은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정원으로 자리 잡았다. 인공적인 느낌을 덜기 위해 꽃과 나무의 꽃말을 없앴으며, 공극한 식물이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인포메이션 센터에 보여주면 알려준다. 가드닝에 관심이 많거나 은퇴 후 정원 속에서 부차트 부부처럼 정원을 가꾸는 노후를 계획하고 있다면 부차트 공원 답사는 필수다.

밴쿠버 그랜빌 섬에서의 데이트

빅토리아에서 밴쿠버로 이동할 때 수상비행기를 이용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바라볼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광활하게 펼쳐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담고 싶다면 창공에서 보는 방법이 으뜸이다. 아름다운 바다와 도심의 풍경이 어우러진 밴쿠버와 빅토리아를 비롯해 웅장한 산맥, 호수, 원시림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수많은 항공사가 제공하는 밴쿠버는 캐나다 서부의 관문이다.

토론토, 몬트리올에 이은 캐나다 제3의 도시로 고층 빌딩과 웅장한 도심 공원이 어우러져 도회적이면서도 쾌적하고, 일년 내내 날씨가 좋은 편이다. 백화점과 브랜드 숍 등이 즐비한 롭슨 거리는 대표적 쇼핑거리로 근처에 프렌치 레스토랑, 정통 이탈리아식 피자집, 일식당 등이 있어 근사한 저녁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연애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싶다면 그랜빌 섬을 추천한다. 공업지구였던 곳을 재정비해 시장, 레스토랑, 공예 공장, 극장 등을 지은 이곳은 건물 안에 밀집한 쇼핑물과 달리 오픈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오후에 산책 삼아 둘러보아도 좋을 듯. 특히,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은 분위기의 퍼블릭 마켓은 활기가 넘친다. 혼제 연어, 소시지, 치즈 등 현지의 유명 식재료를 시식하며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www.hellobc.co.kr

여행상품 문의 02-2179-2518



8월에 떠나는 온타리오주

대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부부애를 다지는 여행

장대한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꼽히는 빅토리아풍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세계적인 부호들의 휴양지 천섬(Thousand Islands) 크루즈, 도시 속의 세계라고 불리는 토론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온타리오주는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곳이다. 원주민 언어로 '천둥소리를 내는 물가둥'이라는 뜻인 나이아가라는 그 수량이 '분에 육조 100만 개를 채울 수 있을 정도'라고 묘사된다. 인디언들만 알고 있었던 나이아가라 폭포가 백인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678년이다. 이후 신대륙 대자연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고, 나폴레옹의 남동생이 이곳으로 신희여행을 온 이후 세계적인 하니문 지역으로 각광받았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포는 탄성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대상으로서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대자연 앞에서 결의 누군가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인지상정. 이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신희여행지로 선택한 것은 아닐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파크웨이를 따라 10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지역이 나온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폭포 주변과는 달리 이곳은 고색창연한 영국풍 건물이 늘어서 있고 포도밭이 햇살 아래 드넓게 펼쳐져 여유와 낭만이 느껴진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이 장엄하고 아찔한 볼거리에 비하자면 소박하기 그지없는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는 여행지에서 모처럼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자전거나 관광 마차를 타고 시내를 천천히 둘러보기에 제격이다.

천섬은 킹스턴에서 빠뜨릴 수 없는 볼거리다. 천 개의 섬을 가지고 있어 천섬이라고 불리는데, 총 187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나무 세 그루만 심을 수 있으면 섬으로 인정하는 아주 작은 것부터 많은 주택이 들어선 것까지 섬의 크기도 여러 가지다. 일부는 캐나다령이고 일부는 미국령으로 섬마다 계양된 국기로 소속을 구분할 수 있다. 크루즈를 타고 천섬을 한가로이 가로지르고 싶다면 양쪽으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전세계 다양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토론토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온타리오주의 주도다. 나이아가라뿐 아니라 캐나다 전체를 여행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마지막 도시이기도 하다. 토론토는 인디언 말로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를 뜻하는데,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멋진 조화를 이뤄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를 만들었다. 토론토를 여행하다 보면 도시가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에 놀라게 된다. 마천루 속에 고층스러운 성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현대적인 건



물이 UFO처럼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거리에는 다양한 인종이 오고 가고, 고요히 반짝이는 크고 작은 호수들은 분주한 도시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이튼 센터는 캐나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쇼핑몰이고, 블루어 요크빌은 토론토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지역이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백화점인 더 베이, 명품 숍, 고급 부티크, 갤러리 등이 들어선 블루어 요크빌은 패션과 디자인, 최신 트렌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28km에 달하는 토론토 도심의 지하보도 PATH는 1200개의 상점이 입점,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곳이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어서 부담 없이 쇼핑하기에 좋다. 다운타운 근처의 디스틸러리 역사지구(Distillery Historic District)는 디자인 숍과 아트 갤러리, 수공예 스튜디오들이 많아 예술작품과 독특한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토론토는 다문화 도시답게 음식 문화도 다양하다. 토론토에만 9000여 개의 레스토랑이 있는데, 고급 레스토랑에서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식문화 또한 메트로폴리스의 모습을 대변한다. CN타워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와인 저장고를 보유한 레스토랑(Top of Toronto Revolving Restaurant)이 있는데, 토론토의 전망을 360도 감상하며 즐기는 식사가 일품이다.

www.ontariotravel.net/kr

여행상품 문의 02-2179-2518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이 함께하는 리마인드 하니문!

사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두 커플에게 '리마인드 하니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응모 자격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지 2~3페이지 또는 〈시니어조선〉홈페이지(<http://senior.chosun.com/event/>)를 참고하세요. 문의 캐나다관광청 02-733-7790



INDUSTRY

유니버설 디자인과 구부러진 숟가락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시니어 용품 산업의 전망이 밝다. 이미 몇몇 대기업은 시니어 용품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시니어 용품 산업의 본격적인 질적·양적 성장이 예견된다.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대한 기사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문자 그대로 남녀노소,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출발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바로 베트남전쟁과 북유럽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다. 베트남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미국 장병들은 고국으로 속속 귀환했고, 북유럽의 노인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꾸려가기 시작했다. 장애인과 고령자, 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제품과 주거공간을 디자인하기 시작한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1980년에 미국의 한 건축가가 처음 언급했다. 유럽 등지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또는 '포괄적 디자인(inclusive design)'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사용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만큼은 동일하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분야는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단순히 제품 디자인 차원을 넘어 건축과 서비스, 정보통신기술 분야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트렌드는 미국과 유럽, 일본 시장을 거쳐 이제 한국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상 고령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문화도 성숙돼가는 추세다. 이는 향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각종 산업의 전망이 밝은 이유다. 하지만 현재 유니버설 디자인이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자칫 산업화 초기 단계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진 숟가락 같은 제품을 고령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소개하는 경우다. 물론 이러한 제품들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디자인이긴 하다. 하지만 모든 이들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으로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전통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4대 원칙은 지원성, 접근성, 수용성, 안정성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공평한 사용, 융통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오류에 대한 포용력, 적은 물리적 노력 등 그 원칙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추

세를 염두에 둔다면, 90도로 구부러진 숟가락은 적어도 공평한 사용이라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국내에서 고령자를 배려한 디자인이라고 내놓은 제품이 실제로는 타깃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고령자조차 고개를 돌리는 제품도 있다. 고령친화 기능성에 매몰돼 제품 본연의 보편성을 잃어버렸거나, 직관적이지 않은 디자인으로 사용자를 당혹스럽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고령자는 물론 아이들과 여성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마음에 드는 제품,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그 사용법이 한눈에 들어오는 제품,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세계적 인터넷 기업 구글은 스마트 안경 '구글 글라스(Google Glass)'를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 글라스는 안경을 통해 내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되고 별다른 버튼도 필요 없이 음성으로 작동되는 컴퓨터다. 그 누구도 이 제품이 고령자를 배려한 제품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종전에 출시된 어떠한 제품보다 시니어에게 접근성이 높고 직관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이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구부러진 숟가락만이 아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꼽으라면 글로벌 주방기구 브랜드 옥소(OXO)를 들 수 있다. 옥소는 미국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며, 미국 주방용품 1위 기업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1990년에 설립된 옥소는 10년 만에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해 이제는 전 세계 주방용품 시장을 이끌고 있다. 노약자나 장애인도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게 설계된 디자인이 빠른 성장 요인이다. 옥소는 유니버설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왜 주방기구는 사용하기 어려울까? 왜 주방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일이 발생할까?' 설립자 샘 파버는 손에 관절염이 있어 주방기구 사용에 애를 먹는 그의 아내를 생각하며 새로운 개념의 주방기구를 고안했다.



손에 물 묻힐 필요 없는 야채 탈수기

옥소 야채 탈수기[OXO Salad Spinner]
물에 씻은 야채를 힘들이지 않고 탈수할 수 있는 주방기구. 한 손으로도 쉽게 작동되며, 야채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링이 달려 있다. 작동법은 매우 간단하다. 손잡이를 간단히 누르면 탈수기가 돌아가면서 야채에 머금은 물기가 빠지며, 뚜껑에 달려 있는 브레이크 탈수기를 멈춘 후 야채를 꺼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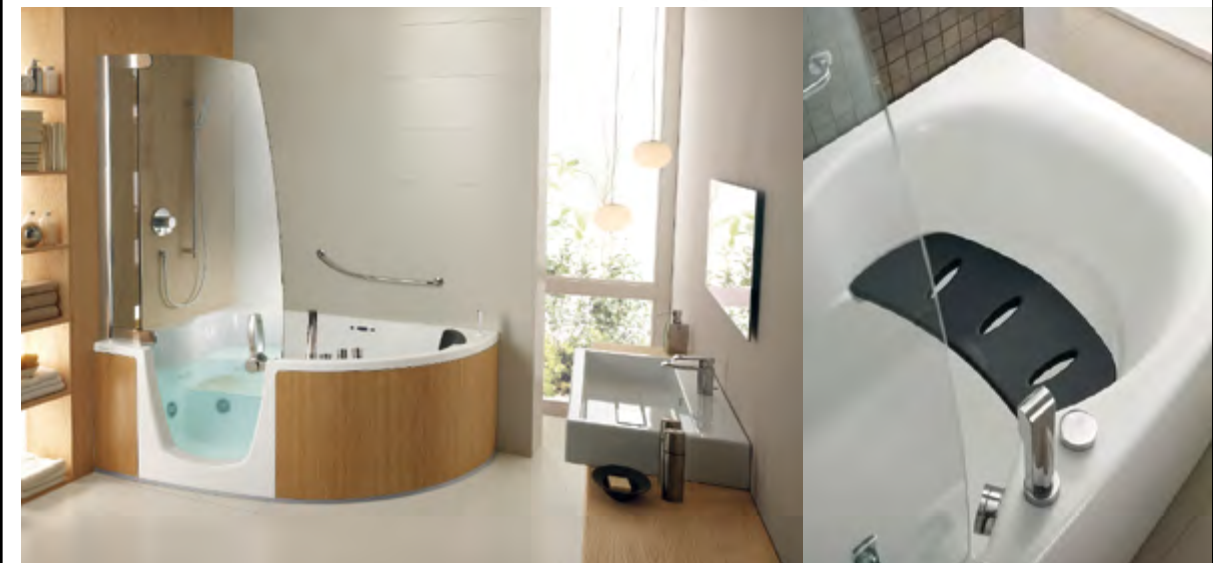
허리를 숙일 필요 없는 계량컵

옥소 컵 2립 계량컵 [OXO 2Cup Angled Measuring Cup]
허리를 숙일 필요 없는 계량컵. 비스듬한 표면에 계량숫자가 표시돼 있어 선 채로 위에서 봐도 계량이 가능하다.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소재로 손잡이를 제작해 안정감 있는 그림감을 준다.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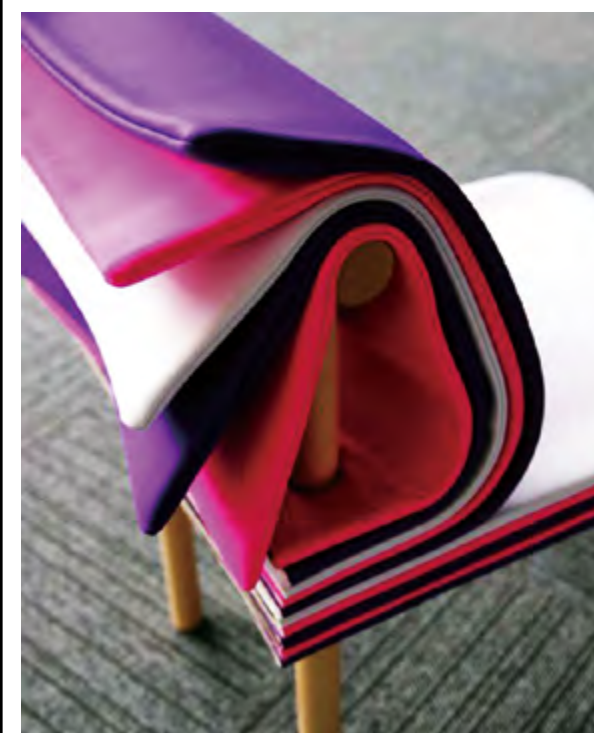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도로 폰이지 740[Doro PhoneEasy® 740]
나이가 많은 시니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스웨덴 휴대전화 제조기업 도로(Doro)가 만들었다. 크고 직관적인 아이콘으로 인터페이스가 구성돼 있어 스마트폰 사용이 부담스러운 시니어들에게 적합하다. 뉴스 검색, 메시지 교환, 사진 전송, 인터넷 등의 조작이 수월하고 전화나 문자 전송이 편리하도록 별도의 슬라이드 키패드가 장착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디자인 회사 베리데이(Veryday)가 디자인했으며, iF 제품 디자인 어워드 2013(iF Product Design Award 2013)에서 수상했다.



안전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욕조

테우코 콤비 유닛 383[Teuco Combi Units 383]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인체공학적 설계의 휠볼 욕조. 욕조 측면에 유리문을 달아 욕조 벽을 넘어가기 부담스러운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도 쉽고 안전하게 욕조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욕조 유리문은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유리를 썼다. 또 욕조 본체 외벽은 오크 우드 패넬로 처리해 멋스러움을 더했다. 이탈리아 욕조 전문 기업 테우코(Teuco)의 제품이다.



어른과 아이 모두 앉을 수 있는 의자

6474 페이지 체어 [6474 Pages Chair]
색다른 방법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 고정된 여러 장의 방석을 원하는 높이에 따라 등받이로 넘겨 의자 높낮이를 조절하면 된다. 방석을 넘기는 형태가 마치 책을 넘기는 것처럼 보여 이름이 페이지(Pages)다. 방석을 넘길 때마다 달라지는 의자 색상은 보너스. 도료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일본인 디자이너들이 만든 디자인 유닛 '6474'의 아이디어가 가루다.

THIS MAN



변호사 신용락 ‘판짓’ 하는 남자가 즐겁다

이 남자의 ‘판짓’은 마흔이 넘어 시작했다.
밀레니엄을 앞둔 세상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고는
도무지 배길 수 없었다는 그.
철이 없었던 걸까? 그렇다면 그는 철을 버린 대신
꿈을 얻은 셈이다. 대체 어떤 꿈을?

새벽골프 저는 스물일곱 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른 살부터 공장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로로 건강을 해쳤어요. 1991년 마산지방법원(현 창원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당시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은 재판부였죠. 급기야 간 질환을 얻게 되었고 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요양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무렵 마침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다행스럽게 대학교수로 있는 형 친구가 소개한 수원법원에서 불교식 기수련을 하면서 몸 상태가 호전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으로 올라온 후 수련을 게을리하니 다시 일이 힘에 부쳤어요. 1997년 즈음 단독판사를 하면서 제가 진행하는 재판을 녹음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숨과 짜증이 잔뜩 묻은 목소리에 스스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는 재판을 망칠 것 같고 ‘내가 쓰러지면 어쩌나’ 가족 걱정도 됐죠. 그래서 1998년 수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진도 사무실 근처로 옮겼고요. 당시는 하루에 10시간씩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식전에 동네 한 바퀴 도는 일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건강을 회복하게 된 계기가 골프입니다. 제 건강을 염려한 친구 따라 새벽골프를 나가게 된 것이죠. 마침 집 근처에 골프장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새벽 5시에 모여 골프를 쳐 보았는데, 의외로 할 만하더라구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해보니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쉬워지고 전과는 달리 누워 있는 것이 갑갑해졌죠. 그래서 연습장에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골프의 묘미를 알게 됐습니다. 워낙 운동신경이 부족한 데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지만, 골프는 달랐어요. 순수한 집중력을 요하는 일종의 멘탈 스포츠죠. 대전 시절 기수련한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웃음)… 여러모로 제게 딱 맞았습니다.

하버드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수원에서 변호사 개업할 때는 그저 ‘건강관리 하면서 조용히 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차츰 건강을 회복하면서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새 천년을 앞둔 당시 기류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모르죠.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 세상이 확 바뀐다고 온통 떠들썩했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라본 선배 변호사들의 모습은 웬지 따분해 보였어요. 당시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남의 이익 위해 돈 받고 대리 전횡하는 것’으로 뼈뼉하게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늙기 전에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뭔가 인생의 목표를 찾아보자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고, 또한 변호사 시장도 전문화 추세로 가기 마련이니 저 나름대로 전문화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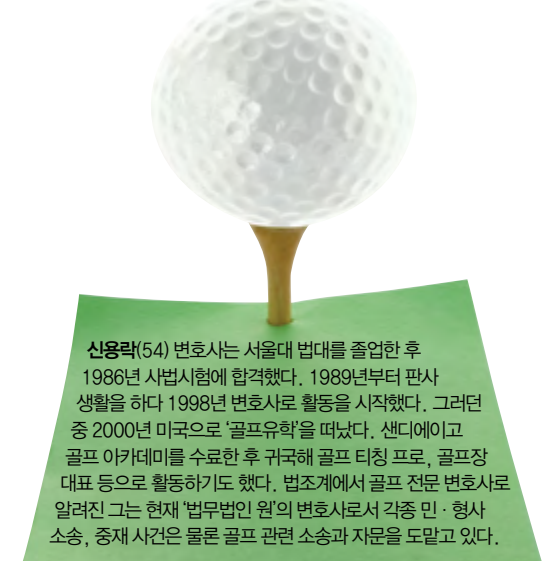
선배가 마크 매크맥의 <하버드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을 추천했는데, 이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마크 매크맥은 전설의 골프왕 아놀드 파머의 법률 자문을 시작으로 스포츠마케팅이라는 새 장르를 개척하고 IMG를 설립하여 세계 제1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키운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매크맥이 말하는 핵심은 결국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해야 성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뻔한 말이지만, 이것만 한 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바로 골프더군요.

마흔에 떠난 유학 경희대학교 골프레저산업 최고과정을 수료한 다음 2000년 7월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골프 명문 샌디에이고 골프 아카데미에 입학했죠. 미국 골프산업계 전반에 이 학교 출신이 2만 명 이상 포진해 있을 정도로 역사가 있는 전문대학교입니다. 그곳에서 티칭과 매니지먼트 과정을 복수 전공했어요. 골프 실력이 늘었고 골프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공부할 수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미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갖가지 직업을 거쳐 레슨 프로를 꾸꾸는 전업자, 은퇴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학생과 친분을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접고 골프유학을 떠날 용기가 어디서 났느냐고요? 그냥 철이 없었던 거죠(웃음). 친사람도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물렁한 것 같아도 한 번 몰입하면 아무도 못 말하는 제 성격을 아는지라 결국 손을 들어주었죠. 한창 돈을 버는 변호사 3년 차에 떠나서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다녀오기를 잘했어요. 가족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추억을 남기고 아이들도 영어를 배우고, 저는 막연했던 희망을 꿈으로 구체화하고 실행할 능력을 키웠다고나 할까요. 무언가 목표가 있다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죠. 새벽골프를 함께 치던 멤버들이요? 그 친구들은 워낙 고수들이라 좋은 제가 경기에서 지곤 했는데,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멋진 설욕전을 치를 수 있었죠. 뭐, 제가 딱히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은 ‘신들린 듯 잘 맞는다’ 싶어도 프로에 비하면 영 못 미치는 실력이지요. 베스트 스코어는 1오버파 73타입니다.

‘법’과 골프사업 2년 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오면서 고인을 많이 했어요. 변호사로 복귀할 것인가, 골프전문가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 다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긴 했지만 마음은

골프, 스포츠산업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유명 선수에게 골프 자문을 하고 골프장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틈틈이 골프 레슨도 했고요. 운이 좋게도 2004년 즈음에는 잠시 골프장 대표이사를 맡아 실무를 경험하기도 했죠. 당시 그 골프장은 9홀을 증설하면서 클럽하우스를 옮기고 거기에 맞춰 운영시스템을 정비해야 했는데, 미국에서 배우고 본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새로운 코스 개장 준비와 운영시스템 점검, 클럽하우스 인테리어, 캐디 서비스 교육과 스코어카드 디자인까지 모두 제가 지휘했어요. 그 시기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몰랐죠. 하지만 그 일을 오래 하진 못했어요. 그때껏 ‘법’만을 다뤘은 제게는 사업가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도 6개월 동안은 여러 구상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그러다 돈이 떨어지자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변호사 일에 매진하게 됐어요. 돈 때문에 꿈을 접고 다시 변호사 생활을 한다는 생각에 한동안 자존감을 잃고 우울하게 지내기도 했죠. 2008년부터는 현재 담당고 있는 ‘법무법인 원’의 대표변호사인 친구가 저를 서울로 이끌어 로펌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젊은 후배들과 어울리며 생기를 되찾게 된 것 같아요. 골프장 관련 자문과 소송을 본격적으로 맡아 처리한 것도 이 시기부터예요. 법조계 내에서도 저의 특이한 이력이 화제가 된 터라 여러 곳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골프 대중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열심히 뛰었죠. 앞으로 그럴 생각이에요. 아마 5년 내에는 10만 원 정도로 골프를 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꿈을 좇아가는 삶 지금 생각해보면 골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 삶이 더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이라는 말…. 사실 중년 나이엔 조금 어색한 말이잖아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꿈을 계속 꾸는 것, 그것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성격에도 이런 말이 있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든 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은 감시한 마음과 활력을 줍니다.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 질려들 꿈을 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살 일과 노후대책도 막막한데, 꿈은 먼 얘기일 뿐이지요. 늘 책임과 경쟁 때문에 쫓기는 삶은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말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꿈을 좇아가는 삶을 살죠. 저만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숨이 가빠도 끝인 지점을 생각하면 힘이 나죠. 처음에는 조금 막연한 희망을 품지만 희망을 이루기 위해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은 희망보다도 훨씬 영(靈)적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덜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니 성공할 수밖에요. 미국에서 만난 가수 인순이 씨가 그러더군요. 성공하는 비결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니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냐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라”고 답하더군요. 그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같은 법인에 있는 강금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누구냐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제게는 가족의 가장, 변호사라는 직업과 골프라는 꿈이 그랬어요. 그것들을 모아낸 것이 바로 제 인생입니다. 지금의 제 꿈은 한 10년 안에 좋은 골프장 하나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이예요. 아마도 그곳에서 인생의 제3막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사정으로 필드에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날도 풀렸으니 나가봐야죠. 올봄부터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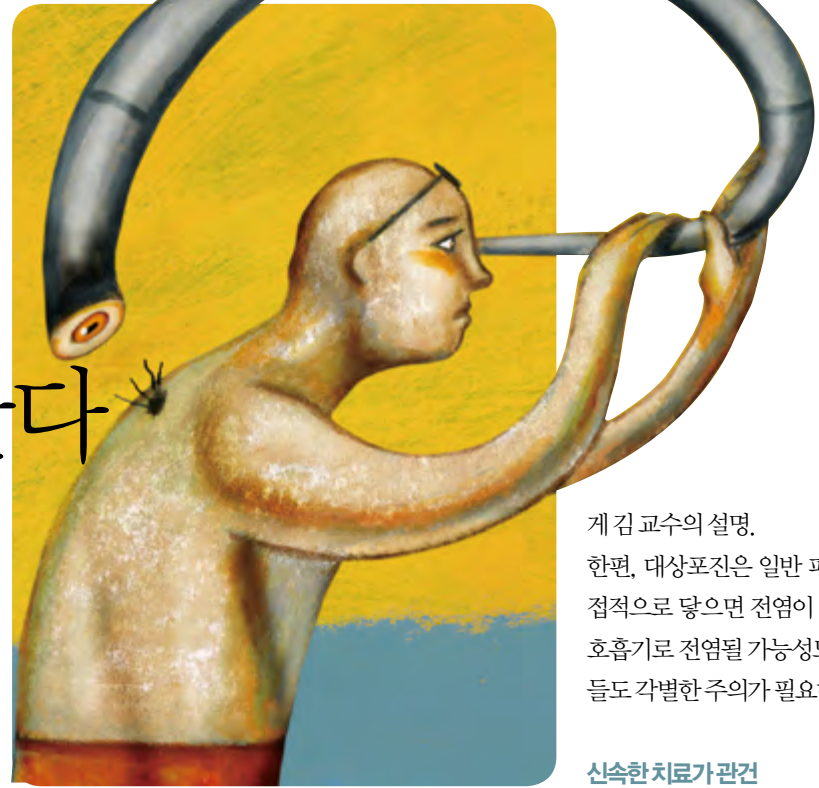


Copyright/multibals

HEALTH

대상포진이 중년을 위협한다

대상포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이 주요 타깃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 피부병이 아니라는 사실.
포진과 통증의 강도는 심각한데
치료가 쉽지 않아 앓을 이들이 많다.
어떻게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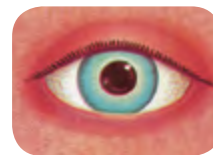


대상포진의 주범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다. 어릴 적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 상태로 남아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인 것.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50대 이상 성인에게서 흔히 나타난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는 2007년 37만5967명에서 2011년 52만8286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50대에서 가장 빈발한데, 2011년 대상포진으로 내원한 환자 52만8286명 가운데 50대는 4분의 1가량인 13만1907명으로 조사됐다. 50대에 이어 환자 수가 많은 연령층은 60대로, 9만3714명이다. 그리고 남성에 비해 여성 환자 수가 많다. 50대의 경우 여성 환자는 8만5493명으로 남성 환자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한양대 구리병원 피부과 김정수 교수는 “최근의 환자 수 증가는 고령화 추세와 유관하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단 기간 과로한 경우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높다”며 “50~60대 여성의 경우 자녀의 결혼이나 여행 등을 준비하며 무리한 것이 계기가 되어 대상포진을 앓게 된 예가 적지 않다”고 전한다.

심각한 합병증 동반하기도

대상포진은 보통 수일 사이 피부에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로 나타난다. 발병 부위는 허리를 비롯해 얼굴이나 가

슴, 다리 등 다양하다. 우리의 온몸에 뿔어 있는 신경분지를 따라 발병하는 것. 보통은 특정 부위에 한정해 나타나지만, 90세 이상 고령자나 특수 면역계 질환자의 경우 몸의 여러 신경분지에서 한꺼번에 발병하기도 한다. 초기의 주 증상으로는 감각 이상을 들 수 있다. 특정 부위의 감각을 상실하거나 반대로 옷깃만 스쳐도 매우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환자 중 일부는 살점을 갈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고. 여타 피부 질환과는 구분되는 점이다.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야 눈에 띄는 붉은 물집이 잡힌다. 물집이 잡히기 전의 증상만으로 열일 정형외과 계통의 질환으로 오인하는 환자들도 있다고. 통증 양상을 잘 관찰해 곧바로 피부과를 찾는 게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상포진은 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단순 피부병과는 차원이 다르다. 포진 후 동통(疼痛) 외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김 교수는 “얼굴에 발병하면 안면마비는 물론이고 눈의 시신경을 건드려 실명할 위험도 있고 허리 아래 발병하면 배뇨 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민감한 부위에 발병한 환자의 경우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입원 치료가 필수다. 또한 “대상포진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동반한다. 통증이 심하고 포진 등으로 대외활동이 어렵다 보니 우울증이나 자살충동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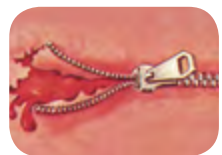
게 김 교수의 설명.

한편, 대상포진은 일반 피부질환과 마찬가지로 물집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전염이 되기도 한다. 병증이 심각한 경우 호흡기로 전염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어린 자녀 등 가족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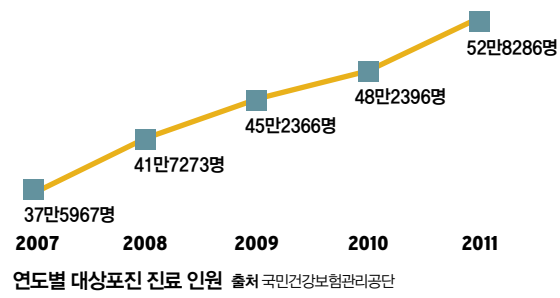
신속한 치료가 관건

그렇다면 대상포진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관건은 얼마나 신속히 대처하는가 하는 점이다. 김 교수는 “완치는 가능하다. 다만 발병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초기 치료가 늦어지면 그만큼 신경 손상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집에 불이 나면 얼른 끄는 것처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늦어도 72시간 이내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한다. 그러나 초기에 대상포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이 많다. 몇 주일이 지난 뒤 물집이 잡힐 대로 잡힌 상태에서 내원하면 늦다. 신경 손상이 이미 진행된 상태, 즉 집이 벌써 불에 타버린 상태라 할 수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포진 후 동통이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욱이 한 번 손상된 신경은 재생이 쉽지 않다. 연령이 높을수록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통증의 강도 역시 더 세다.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통증 클리닉에서 서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게 최선이다. 이처럼 한 번 걸리면 결코 치료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대상포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 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있다. 김 교수는 “40~50대가 접종하면 좋다. 단,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일회화될 단계는 아니다”고 말한다. 이어 “대상포진은 특정 음식이나 운동으로 막을 수 있는 질환은 아니다. 그저 스트레스를 덜 받고, 피곤하지 않게 몸 컨디션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Copyright/multibals



한방으로 다스리는 대상포진

한방으로 대상포진을 다스리는 방법도 있다.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이상훈 교수는 “난치성 통증인 경우 여러 가지 한의학적 치료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한약과 침술을 소개한다. 시령탕, 청명탕, 용담사간탕 등으로 통증 및 염증을 감소시키는가 하면 만성기의 경우 보종익기탕, 팔물탕 등으로 면역력을 높인다. 아울러 국소부위 혹은 진통(鎮痛) 효과가 있는 경혈에 침이나 뜸을 시행하기도 한다. 1~2일 간격으로 봉독약침을 시술하는 것도 방법이다. 봉독약침은 봉독을 정제한 약침액을 경혈에 국소상 주입하는 것으로 마비된 신경의 빠른 재생과 회복을 촉진하는 요법이다. 이 교수는 “봉독약침은 진통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왔으며, 벌에 쏘인 후 대상포진으로 인한 오랜 신경통이 치료되었다는 외국의 증례 보고도 있다”고 덧붙인다. 한방 치료의 효과는 질병의 중증도 및 반응 속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통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화장애 등으로 진통제 복용이 어렵거나, 장기간의 치료도 반응이 없는 경우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말한다.

MONEY

가치가 높은 조경수를 키워 되파는 방식의 나무 재테크가 화제가 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조경수 재배와 관련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속속 생겨난 데 이어 몇 권의 서적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개인 투자자들이 나무 재테크에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통적인 금융 및 부동산 투자가 저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수익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 이에 반해 나무는 어떤가. 나무 재배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수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00~4000원 정도 하는 중묘가 4년 후엔 10~12만 원 정도의 성목으로 돌아온다. 정기적인 제조 및 비료 작업 외에 별도의 성가신 일도 없다.

적은 노동력으로 고수의 창출

현재 대구 근교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며 조경수 재배 컨설팅 사무소 '나무와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광만 소장은 나무 재테크의 장점으로 크게 네 가지를 거론한다. 첫째, 자연 속에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노동력에 비해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셋째, 적은 자본으로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넷째, 자식에게 상속해줄 수 있다는 것. 여기에는 물론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 명목의 경우 한 그루에 몇 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귀가 솔깃해진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나무 재테크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삼목이나 절목 또는 종자를 파종해 묘목을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 소나무 등의 특수목을 재배하거나 호두 나무나 밤나무 등의 유실수를 재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일정 규모의 재배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물 재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또 관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처음 나무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방법은 아니다. 대신 이 소장은 "초보자이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투잡으로 나무를 재배하려는 이들의 경우 중묘를 성목으로 키우는 방법이 가장 안전

하다"고 설명한다. 이 방법은 전문적인 재배 기술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나무 관리에 많은 시간을 요하지도 않는다는 것.

이때 식물에 대한 기초 지식과 농사에 대한 일반 지식을 공부하는 일은 필수다. 책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들과 인적 교류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고 이 소장은 조언한다.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실질적인 나무 재배 기술을 배우고 나무 판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 소장은 "조경수 재배가 인기를 끌면서 각종 사이트와 카페가 생겼다. 그중에는 비료나 묘목 등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곳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www.kfri.go.kr), 한국조경수협회(www.klta.or.kr), 산림청(www.forest.or.kr), 그리고 조경수 직거래 사이트인 트리디비(www.treedb.co.kr)와 조경수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카페 나무와문화연구소(cafe.naver.com/namuro) 등이 현재 재테크를 하는 이들이 주로 찾는 곳이다.

흔한 수종 택해야... 비용과 프로세스가 관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수종 선정이다.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당연히 '시류를 타지 않는 나무'를 택하는 것이 좋다. 조경수나 가로수로 흔히 사용되는 수종을 기른다면 결코 손해 보는 일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같은 수종은 가격 변동이 거의 없을뿐더러 재배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어 초보자에게도 안정맞춤. 느티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적인 수종을 택하지 않더라도, 묘목 값이 비싼 나무는 심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소장은 "나무 가격에도 일종의 사이클이 있다. 값이 한창 비쌀 때 그 나무를 택하면 좋지 않다. 비싸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이들이 그 나무를 택해 심고 있다는 말이므로, 성목이 됐을 때는 자연히 값어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귀띔한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나무 재테크에 뛰어들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각각의 여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이 소장이 설계한 '조경수경영계획서'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정해볼 수는 있다. 조경수경영계획서는 나무 재배 전 미리 식재·관리·판매에 대한 비용과 프로세스를 수립해 이윤을 예측해보는 것이다. 가령 3,300㎡(1,000평)의 밭에 4000원 하는 느티나무 묘목을 2.5m 간격으로 식재해 4년간 재배한다고 가정해보자. 근원지름 12cm의 느티나무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식재 시에 묘목비, 퇴비비, 밭 정리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비용은 처음 한 번만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리고 매년 3회 정도의 제조작업에 소요되는 농약비와 인건비, 1~2회의 사비 작업에 소요되는 비료비와 인건비를 고려해야 한다. 교통비와 밭 임대비 등도 포함시키면 더 정확하다. 이 같은 프로세스로 4년간 작업하고, 비용은 현재의 시세대로 가정해 '조경수경영계획서'를 작성하면 약 400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하단 <표> 참고). 물론 여기서 자신의 기술 수준과 작업 시간,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볼 수 있다. 수종이나 묘목의 크기, 식재 간격 등을 다르게 설정해도 예상 수익은 달라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나친 환상은 금물이다. 이 소장은 "최근 시장에는 나무 재테크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기사가 넘쳐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잘된 경우다. 시장에서 원하는 나무를 적은 비용을 들여 생산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한다. 첫째, 나무 재테크는 장기적인 안목과 긴 호흡을 필요로 한다는 것. 주식투자처럼 오늘 샀다 내일 파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이다. 둘째, 당연한 말이지만 나무를 '잘' 길러야 한다는 것. 조경업체나 건설업체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좋은 나무를 생산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나무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물론 재배 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직장에 다니고 계산가요? 그렇다면 먼저 투잡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4~5년간 나무를 재배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죠, 사전 준비 없이 덜컥 시작서를 썼다간 낭패를 볼지도 모릅니다."

조경수경영계획서

사제	비고
식재 면적	3,300㎡(1,000평) 밭의 넓이
수종	느티나무 식재 수종
묘목 크기	2m 묘목을 크고 좋은 것으로
묘목 단가	4,000원 구해서 심는 것이 경제적이다
식재 간격	2.5m 식재 간격, 식재 주수,
식재 주수	528주 판매 규격은 서로
재배 기간	4년 연관성을 가지므로
판매 규격	12점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판매 주수(80%)	422주
주당 예상 판매단가	118,000원 조달청 단가의 40% 적용
판매 예상 총액	49,796,000원
식재 비용 총액	4,030,000원
관리 비용 총액	8,000,000원 4년 동안의 관리비
총 소요 비용	12,030,000원 식재 비용+관리비용
예상 수익금	37,766,000원 판매 예상 총액-총 소요 비용

재원 나무와문화연구소

CHECK

지난 2010년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 의하면 전업 혹은 겸업으로 나무를 재배하는 가구수는 현재 약 1만2000가구에 이른다. 또 최근 트리디비의 조경수 생산 방식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총 조사 가구 1200가구 중 전업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18%, 조경 공사와 겸업으로 하는 경우가 25%,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5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multib

WEALTH

富者들의 세테크 전략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이 골머리를 앓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세금. 부자 혹은 부자가 될 이라면 주목하라. 당신이 알아두면 좋을 '세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부자란,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보유 재산이 많은 사람을 일컫는다. 세금은 이 같은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므로 부자들은 이래저래 많은 세금을 내기가 쉽다. 최근에 변경된 제도 중 특히 부자들을 괴롭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니 뭐니 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강화를 첫손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이의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 실제로 종합과세 강화로 인해 은행의 많은 돈이 비과세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된다.

부동산 사정은 조금 다르다. 시장 침체로 인해 세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주택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양도소득세 증과세 제도는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도 언제든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하지만 자칫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경우 세금 추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녀 명의로 된 통장의 잔고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언제든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족 간에 주고받은 돈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강화되었다.

이 외에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과세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안들이 통과된다면 그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식으로 세테크 전략을 짜야 할까? 금융자산과 부동산 그리고 상속·증여 순으로 살펴보자.

CHECK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소득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요즘은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적용되어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 가령,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연간 7억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경비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간별로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증이 잘못 이루어지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 세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법인전환 등을 통해 대응해나기도록 한다.

첫째, 금융자산에 대한 전략

금융자산의 경우 명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명의를 제대로 관리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현금증여추징 같은 제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현금이 있다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이용해 분산 소유해야 한다. 성년 자녀는 3000만 원, 배우자는 4억 원... 이런 식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물론 증여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 세법에서는 사전 증여세 신고 여부에 따라 추가수익에 대해 과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명의가 결정됐다면 금융상품은 비과세상품 위주로 가입한다. 금융자산의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므로 가급적 세금이 없는 상품으로 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주식·펀드·채권·보험·파생상품 등이 있다. 재형저축 같은 비과세저축은 소득이 낮은 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자들은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 대신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가입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5년 이상 가입하면 막대한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가입금액에 38.5%의 세율을 적용하면 연 154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점점 약화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당장의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부득이한 상황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 등의 수입 시기를 이연시키거나 미리 소유자를 분산시키면 종합과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에 대한 전략

부동산은 금융자산과 달리 세금의 종류도 많고, 세금액도 많다. 따라서 취득 단계부터 처분 단계까지 거래단계별로 절세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를 금융자산으로 비뚤다. 금융자산은 부동산에 비해 세금이 별로 없고 유동성이 뛰어나 자산운용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무엇보다 자금출처조사에 주의해야 한다. 이 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80%까지는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금 등으로 입증하도록 한다. 또 부동산을 보유할 때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자금 당장은 그 부담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피하고자 무턱대고 명의를 옮기는 일은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부부가 공동 소유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취득세를 부담하는 등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비거주자(주로 외국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배우자증여에 대한 6억 원을 공제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선불리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상가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계약서 사인 전에 미리 세금의 규모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계약을 한 후에는 절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참고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계약서를 포함한 거래증빙을 제대로 갖춰 향후에 있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셋째,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전략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면 자산을 안전하게 자식에게 물려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이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물론 세금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일단 부모나 자녀 등에게 이전하는 재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금융자산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상품을 대신 가입하고, 한도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노후 대비용인 연금저축은 연령이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대신 가입해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관련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다만 부채를 포함한 상태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의 방법도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미리 세무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가나 기타 임대소득이 나오는 부동산은 미리 지분증여를 통해 이를 관리하면 임대소득세가 절약된다. 향후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증여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낮은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므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Copyright/multib

SENIOR CARE



집 안 위험 요소 체크리스트

- ☐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들
(작은 카펫, 전기장판, 애완동물 등)은 없는가?
- ☐ 냉방고 안에 상한 음식은 없는가?
- ☐ 욕실 내에 노인들이 지탱할 수 있는 안전 손잡이가 있는가?
- ☐ 샤워 부스가 없어 욕조 안에서 샤워해야 하는가?
- ☐ 잡다한 집기나 가구로 인해 이동하기가 불편하지 않은가?
- ☐ 집에 경사가 가파른 곳(계단 등)이나 문턱이 많은가?
- ☐ 실내 조도가 너무 어둡지 않은가?
- ☐ 침실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는가?

부모님을 혼자 두지 마세요

질병이나 사고는 예고 없이 온다. 누구도 이 같은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홀로 사는 노인은 특히 그렇다. 주변에 도와줄 이가 없다는 점에서 결과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자택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이 모(75) 씨는 올 초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작은 부주의 때문에 크게 다칠 뻔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얼마 전부터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된 것. 누워 있는 고양이의 몸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자칫 균형을 잃었다면 골절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씨의 경우처럼 홀로 사는 노인은 수시로 위험에 노출된다. 도와줄 이가 없기 때문에 결과는 더 치명적이다.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안전한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가 따르면 화재나 가스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독거 노인층에서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혹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의 사고 발생 비율이 3.8%와 4.8%인 데 반해, 홀

로 사는 노인은 6.5%가 안전사고를 경험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집 역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집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 요소가 숨어 있다.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카펫, 미끄러운 욕실, 경사가 높은 계단, 어두운 조명, 냉방고에 보관된 오래된 음식 등이 그 예다. 신체 건강할 젊은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지만 몸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글로벌 시니어케어 기업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가 노인을 돌보고 있는 전 세계 5300여 명의 케어기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령돼 있지 않은 카펫(57.1%)이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경보 장치의 부재(46%), 냉방고 안의 상한 음식물(38.3%), 안전 손잡이가 없는 욕실(38.2%) 등이 주요 위험 요소로 꼽혔다.

사고와 사건에 노출된 노인들

노인 대상 사기 범죄도 심각한 위험 요소 중 하나다. 건강식품을 비싼 값에 팔거나 거짓말로 거액을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잊지도 않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노인 대상 취업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사기는 외로워하는 노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 사기 범죄에 취약한 노인들의 공통점은 '주변에 상의할 사람이 없어 합리적 판단이 어렵다', '외로움 때문에 친절한 사람에게 쉽게 정을 준다', '질병 등으로 심신이 약해져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사기범들이 개인정보까지 손에 쥐면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 살고 있는 A(78) 씨는 손자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깜빡 속아 넘어갔다. 손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것. 목소리가 이상해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녀 남편이 병원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다. 마음이 다급해진 그녀는 바로 거액을 송금했고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땅을 쳤다. 개인정보의 상당수는 집에서 버려지는 각종 문서를 통해 유출된다. 은행 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명세서 및 영수증, 그

리고 기타 금융 문서 등 개인정보가 상세하게 담겨 있는 문서는 폐기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기 범죄를 당하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 사기 후유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 다시 사기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함으로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탓하면서 은둔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역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커지기도 한다. 정신적 충격이 심한 경우엔 육체적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실이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내는 것이다. 같이 살면 부모님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쉽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사기 범죄를 당해도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함께 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가족처럼 돌보는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앞서 소개한 사기 피해자 A씨는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은 후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의 홈케어 서비스를 받으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의 케어기버는 대화, 산책, 요리 만들기 등을 함께 하면서 그녀가 자책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홀로 사는 A씨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간단한 집안 일까지 맡아 처리한다.

사기 피해 위험 척도 체크리스트

- ☐ 홀로 살고 있으며 대화할 사람이 많지 않다.
- ☐ 찾아오는 방문객이 거의 없다.
- ☐ 가족들과 자주 만나지 않는다.
- ☐ 전화를 끊기 위해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다.
- ☐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루는 편이다.
- ☐ 온라인 쇼핑을 좋아하는 편이다.
- ☐ 우편함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 사람들을 신뢰하는 편이다.
- ☐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도움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 ☐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
- ☐ 치매 혹은 알츠하이머병이 있다.
- ☐ 항상 여분의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 ☐ 손주에게 무언가 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될 경우, 사기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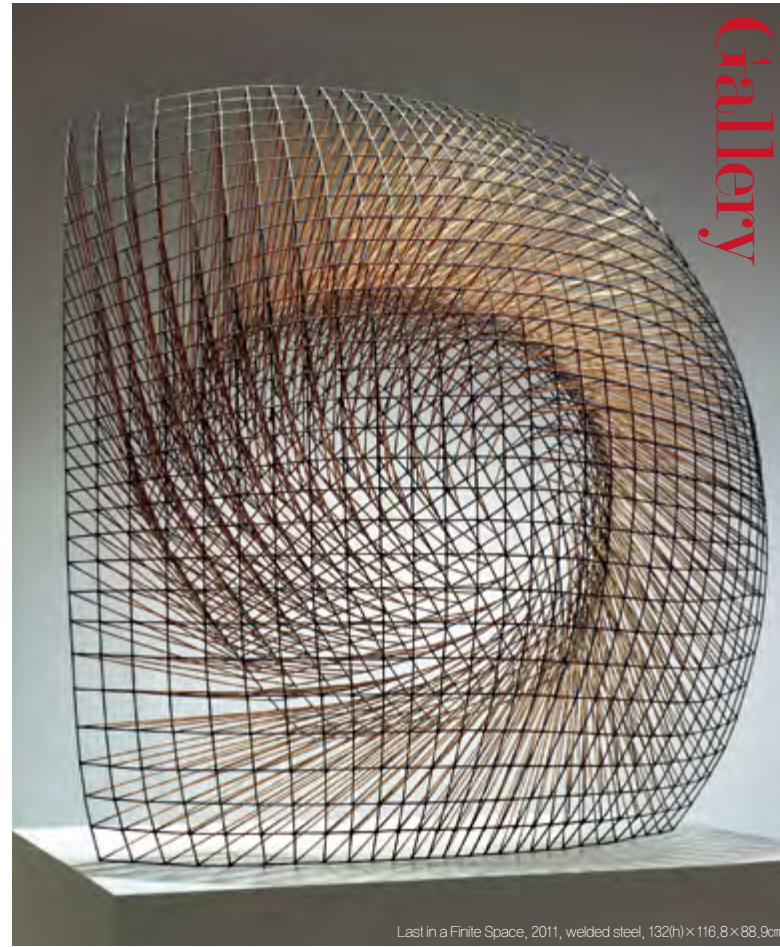
©gettyimages/multibits

Home Instead
시니어케어

가족처럼 돌보는 어르신들의 동반자

(주)홈인스테드코리아는 세계 최대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인 미국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의 한국 법인으로 2008년에 설립된 업체. 본사와 동일한 케어 서비스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청주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다. 외출 동행, 투약 관리, 식사 준비, 안전한 집 안 환경 유지, 심부름, 치매환자 돌보기의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문의 02-3218-6243, www.homeinstead.co.kr

BULLETIN



존 배 '기억의 은신처'展

재미 조각가 존 배 작가가 7년 만에 국내에서 신작을 선보인다. 개개의 철사를 융접해 완성된 존 배 작가의 작품은 동양적인 감수성으로 융접조각의 독자적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번 개인전에서 선과 면의 유기적인 조화를 표현한 17점의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시는 4월 25일까지 갤러리 현대 신관에서 진행된다. 문의 02-2287-3500

박금자 등공예展

지난 30년간 국내외에서 등(藤)의 줄기로 다양한 작품을 탄생시킨 등공예가 박금자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해리 예술마을 북하우스 지하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길책박물관의 초청으로 기획된 것. "창녀머로 피고 지는 꽃을 보며 마음이 흐르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꿈, 제게는 등공예가 바로 그런 꿈입니다." 박 작가의 말이다. 발리 등공예를 통해 각종 바구니를 형상화해낸 박 작가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환경친화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시 기간 중 박 작가와 함께 바구니를 만드는 아트클래스도 열린다. 4월 30일까지. 문의 031-949-9786



Hotel

전통美 살린 엠블 호텔 킨텍스

경기도 일산사구 한류월드 2구역에 특1급 호텔 '엠블(MVL) 호텔 킨텍스'가 최근 문을 열었다. 20층 규모에 24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한 총 377개의 대규모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호텔이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다른 아닌 '한국스타일' 때문. 한국식 온돌방을 체험할 수 있는 코리안 스위트룸과 청사초롱, 등잔, 한복웃고름 등을 모티브로 삼은 내외관 인테리어가 보다 품격 있는 분위기를 원하던 중년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밖에 최첨단 운동시설을 도입한 피트니스클럽과 아이수영장, 로하스(LOHAS) 콘셉트의 뷔페 레스토랑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의 031-927-7700

봄의 정원을 담은 샴페인

봄바람이 살랑이는 이맘때, 사랑하는 이를 위해 샴페인 한 병 준비하는 센스를 발휘해보자. 여기 마침 봄을 담은 샴페인이다. 프랑스 샴페인 브랜드 뱌브 클리코가 봄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뱌브 클리코 로제 스프링 가든 컬렉션'을 내놔다. 레드와인을 블렌딩해 우아한 맛을 자랑하는 로제 샴페인에 화려한 꽃과 열매가 그려진 패키지를 더한 것이 특징. 선물용으로 제격이다. 뱌브 클리코 로제 스프링 가든 컬렉션은 '스프링 가든 박스'와 '스프링 가든 세트' 두 가지로 출시됐다. 문의 02-2188-5100



Champagne



Fashion

감성적인 남자를 위한 가방

당신이 든 가방이 당신이 어떤 감성의 소유자인지를 말해주기도 한다. 수제화로 유명한 프랑스 브랜드 벨루티가 베스트셀러 '1 ZIP 백'에 캘리그래피를 더한 '뉴 스크리토 1 Zip 백'을 새롭게 선보였다. 앞뒤 전면의 고급 베네통이 가죽 위에 아름다운 캘리그래피를 한 땅 한 땅 이로새겼다. 이 필적은 18세기 프랑스 국왕이 귀족에게 하사한 비밀스러운 편지의 문구. 18세기 찬란한 문화의 흔적을 가방에 고스란히 담았다. 문화적 감성이 살아 있는 남자를 위한 아이템. 문의 02-3446-1895

<콜린 파월의 실천 리더십>

미국의 군인이자 정치인이었던 저자가 인생과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한 책. 오늘날 그가 미국 최고의 리더로 평가받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했다. 자신의 '13가지 원칙'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험에 입각한 리더십의 본질과 실재를 설명한다. 부하직원을 격려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방법, 조직 내 신뢰와 상호존중의 의미, 디지털기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등이 담겨 있다. 콜린 파월 토니 콜츠 저, 샘터



<1일 1독>

매일 한 편씩 중국 고전을 읽고 되새기는 금언. 고전 속에 담긴 무궁무진한 인생 이야기 중 151가지 금언을 추렸다. 고전의 핵심적인 구절을 소개한 뒤 그에 얽힌 일화를 풀어내며 그 뜻을 짚어간다. 공자, 노자, 장자, 그리고 사마천, 이백 등 옛 성현들이 풀어놓은 성찰의 지혜를 통해 관계의 어려움에서 실마리가 될 일침, 리더로서의 전략이 필요할 때 돌파구가 될 단서 등을 캐치할 수 있다. 김원중 저, 민음사

<히치하이커의 철학여행>

픽션으로 되살려낸 철학. 영화 '블레이드 러너' 속 복제인간 병기 로이를 등장시켜 복제인간이 아닌 이성과 인간의 이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간을 죽인 로이에게 과연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로크가 각각의 사유를 통해 답을 제시하는 식이다. 새로운 상상력으로 구성된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근현대 철학의 주요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진경 저, 휴머니스트



Books



Culture space

새로운 문화공간 '아프리카나' 개관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을 원했던 이들에게 희소식. 지난 2월 중순 분당에 문을 연 갤러리 '아프리카나'가 바로 그런 곳이다. 갤러리와 카페를 합친 '하이브리드형 갤러리'로 이해하면 된다. 아프리카나 홍장석 대표는 열정과 소통을 강조하는데, 때문인지 다른 갤러리들과는 달리 이곳에는 엄격한 격식이 없다. 누구든 쉽게 들러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현재 1층 카페에서는 아프리카를 테마로 활동하고 있는 신미술 작가의 사진 10여 점과 함께 커피, 유럽식 팬케이크를 즐길 수 있다. 2층 갤러리에서는 개관 기념으로 서양화가 이억태 작가의 초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다. 4월 30일까지 이어질 이번 전시에서는 'Beam Flower'란 타이틀로 25점의 작품이 관객과 만난다. 문의 031-708-8115

Jet lag? What jet lag?

Fully flat beds in Executive First®.

하늘 위에서 누리는 최상의 안락함.

에어캐나다의 비즈니스 클래스, The Executive First Class를 경험하세요.

에어캐나다 비즈니스 클래스 특가

대표주요도시	왕복
밴쿠버/캘거리/에드몬튼	299만원~
토론토/뉴욕/워싱턴/보스톤/멕시코시티	399만원~
산티아고/상파울로/부에노스아이레스	550만원~

※상기 운임은 주중 왕복 운임이며, TAX 불포함입니다.



* 에어캐나다는 인천에서 밴쿠버, 그리고 토론토까지 직항을 운항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물론 미국, 중남미 주요 도시까지 편리한 연결 노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Best International
Airline in North America
three years in a row
now has four stars

에어캐나다 한국지점
서울) 02-3788-0100
부산) 051-463-7671
www.aircanada.co.kr

AIR CANADA 

A STAR ALLIANCE MEMBER 